

특별기고

한자 교육의 추진과 정자 표기를 위한 교학의 노력 ④

3. 지식인(知識人)의 한자 오기



박동규  
영북노인대학 학장

모 국영 방송사에서 모 대학 교수가 보양식(補陽食)에 대한 설명으로 보양식은 추어탕이 제일인데 '추' 자는 '秋' 자로 표기한다고 했는데 미꾸라지의 추자인 鮪(자)가 따로 있어 추어탕(鮪魚湯)으로 바른 표기를 해야 할 것이요. 한의학 박사가 한방(韓方)에 대한 강의 가운데 桔梗의 '梗' 자를 '更' 자로 오기 설명했는데 길경(桔梗)이 바른 표기다.

교수가 노대통령의 '慮' 를 '慮' 로 표기했으니 慮慮不辨으로 한자 표기의 남발이 결례가 아닐 수 없고, 강희사전(康熙字典)에 수록된 한자가 5만 자 내외가 되는데 4~5만자를 독해한다는 것은 어불성설(語不誠說)이다. 한자능력검정시험의 출제 한자 범위가 3500자에 불과하지만 합격자는 그렇게 많지 않으나 사실로 미루어 보다면 진위(眞僞)가 밝혀졌다고 하겠다. 신문 광고에서 자기 어머니의 장례를 마친 후 인사에서 돌아가신 어머니를 선자친(先慈親)이라고 표기했는데 이는 선비(先妣)나 선자(先慈)로 해야 옳은 표기가 아닌가 한다. 호상(護喪)과 호상(好喪)을 혼동해서 표기했는데 호상(好喪)은 오래 살고 복록을 많이 누리다가 죽은 사람의 상사를 말함이고, 호상(護

喪)은 호상차지(護喪次第)의 준말로 초상에 관한 모든 일을 맡아보는 사람을 뜻하기 때문에 분명히 식별해서 표기해야 한다. 원로 방송인이 노인의 근력(筋力)을 설명하면서 '근' 자는 뿌리 '根' 자라고 설명했지만 '筋' 자가 바른 표기다. '筋' 자는 힘줄·힘·기운의 뜻의 한자다. 모 중앙 유력지에 모 중국어 교수가 문경(聞慶)을 문경(文慶)으로, 알묘조장(揆苗助長)을 발묘조장(拔苗助長)으로 표기를 했는데 지식인들의 한자의 바른 표기가 아깝다고 하겠다. 한자표기는 사전(字典)·옥편(玉篇)·사전(辭典) 등 사서류(辭書類)를 통해서 재차 확인해서 자원(字源)을 밝혀서 확실한 표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책상에는 국어사전·

영한사전·한자자전을 함께 갖추어 수시로 활용토록 해야 한다. 고교 교장 재임 시에 모 대학교 졸업식에 초청되어 회식에 참석한 바 있었는데 식당입구 전면 벽에 게시한 천객만래(千客萬來)의 현관을 보고 교수마다 해석을 구구하게 서로 달리 설명하고 있었는데 많은 손님이 많이 오기를 바라는 의미의 성어(成語)라고 설명을 해준 적이 있었는데 '百·千·萬' 자의 한자는 수 자체의 뜻도 있지만 다수(多數)·자주의 뜻으로 많이 쓰인다. 요즘은 인쇄소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재학시절 한자·한문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한자의 기초가 없어 색자(篆字)하는 과정에서 오타(誤打)한 것이 많은데 한자에 대한 식견(識見)을 넓히는데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

특별기고

화해와 진실을 위한 과거사의 진상규명



김창중  
수필가·신변관리위원  
출판·편집·교육전문  
강·논설위원·본지  
주필위원

지난해는 돼지의 해라고들 애간박을 떨더니만 국민을 부자로 만들고 잘 살게 하려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실업자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소리 높여 외친 이명박 대통령이 민주화 이후, 최다 득표로 대통령에 당선되는 영광을 안았다. 원이었던 10년이나, 좌파정권이 하면서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를 다시 태어나는 안될 정부인 양, 매도하지만 사실은 IMF 국가위기에선 먼저 IMF위기를 겪었던 영국과 프랑스, 일본 등의 선진국보다도 슬기롭게 지혜를 모아 단 시일 내에 극복한 정권이었으며 수십만 아니 수백만 명의 굶주린 북핵노동자들이 때를 지어 불뿔 듯이 남쪽 대한민국을 향해 넘어와 구제불능의 혼란의 도가니로 한반도를 물고 갈 위기에 서서 한민족을 구한 10년이었으며 북·미 직접 핵 협상이나 북·미 외교 관계 상향에서 방관시되는 제3차적(외교적) 위치에서 대한민국의 주체적 외교 및 대북 정상외교로 핵문제 해결의 선도적 역할을 했던 일이나 남·북 화해를 위한 한민족 서로 돕기 운동 등 많은 업적을 남기기도 했다.

명해 달리는 진정서를 접수하고 진실과 화해를 위해 명백히 진상을 규명하여야 하겠는데 6.25당시 상황을 증언하여 사실 규명의 증인이 되어달라는 전화였다. 간단히 말하면 일동면사무소 근무 6.25년 공무원이었던 박 모씨의 6.25당시 역을한 죽음을 명예롭게 회복해야 할 과제를 안고 필자를 만나고자 하는 조사관의 태도는 진지하고 진실되고 노력하는 공직자의 자세였으나 필자 김창중은 6.25당시 중학교 2학년생이었으며 6.25전쟁이 끝난 해(1950~1953)는 고등학교 1학년생이었으니 생생한 증언자로 사실 규명을 위해 조사관 앞에서 서서 조사를 쓰시는게 너무 어린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이다.

명해 달리는 진정서를 접수하고 진실과 화해를 위해 명백히 진상을 규명하여야 하겠는데 6.25당시 상황을 증언하여 사실 규명의 증인이 되어달라는 전화였다. 간단히 말하면 일동면사무소 근무 6.25년 공무원이었던 박 모씨의 6.25당시 역을한 죽음을 명예롭게 회복해야 할 과제를 안고 필자를 만나고자 하는 조사관의 태도는 진지하고 진실되고 노력하는 공직자의 자세였으나 필자 김창중은 6.25당시 중학교 2학년생이었으며 6.25전쟁이 끝난 해(1950~1953)는 고등학교 1학년생이었으니 생생한 증언자로 사실 규명을 위해 조사관 앞에서 서서 조사를 쓰시는게 너무 어린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이다. 필자는 다만 중·고교 시절 겪은 사실을 포천문화, 국제 PEN, 국제공공연합회, 자유문학(순수문학지)(문예지), 생활문학(문예지) 등에 발표한 작파적 집필행위에 불과한 데 아무리 문학적 향기가 높아 독자들에게 감동을 주었다(?)하더라도 실록(實錄)이나 조사보고서(調查報告書)적 성격의 글을 쓴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포천시청 공무원인 정부의 공식기관(장관급 위원장)의 조사관을 포천에서 거주하지도 않고 출향(出郷)상경(上京)해서 살고 있는 필자에게 다만 6.25를 소재로 하여 수필체의 일기문을 집필하여 문학지에 발표하였다든 이 유 하나만으로 작파적 대답 밖에는 진술할 수 없는 처지임을 알았을터인데 필자를 대상으로 6.25 당시 포천으로 납치된 북한 김일성 집단의 동족학살의 만행을 증언토록 안내하였다든 사실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납득이 가지 않아 몇 번 거절하다가 담당 조사관의 간곡하고도 애절한 증언 요청에 하는 수 없이 3회의 전화 증언과 필자의 6.25를 소재로 한 수필체의 일기문 중 문학전문지 공무원문학 2007년 봄, 여름, 가을, 겨울호에 게재된 것을 복사 증정하는 선에서 조사를 마감하였다.

특히, 과거사 진상규명중 친일파 후손들의 상속 유산 및 토지 환수, 역을한 개발 독재 시대의 의문사 진상 규명, 친일행위자 친일파 조사 사료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을 통한 역을한 서민들의 문제 해결 등은 지난 10년의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특단의 노력 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큰 공적이었다. 얼마 전, 진실과 화해를 위한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송실대 명예교수 안병욱 철학박사) 조사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던 필자의 경험은 내 고향 포천의 여러 계층의 인사들에게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음을 권고하는 이 글을 쓰게 하였다.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은 포천시청의 모 여직원의 안내로 내게 전화를 하였다. 다행이 아닌 6.25당시 북한정권의 남침시 포천에서 학살당한 일동면 거주 고 박 모씨의 따님이 부친의 6.25당시 북한정권의 추종자들에게 의해 역을하게 죽음을 당한 사실을 규

명해 달리는 진정서를 접수하고 진실과 화해를 위해 명백히 진상을 규명하여야 하겠는데 6.25당시 상황을 증언하여 사실 규명의 증인이 되어달라는 전화였다. 간단히 말하면 일동면사무소 근무 6.25년 공무원이었던 박 모씨의 6.25당시 역을한 죽음을 명예롭게 회복해야 할 과제를 안고 필자를 만나고자 하는 조사관의 태도는 진지하고 진실되고 노력하는 공직자의 자세였으나 필자 김창중은 6.25당시 중학교 2학년생이었으며 6.25전쟁이 끝난 해(1950~1953)는 고등학교 1학년생이었으니 생생한 증언자로 사실 규명을 위해 조사관 앞에서 서서 조사를 쓰시는게 너무 어린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이다. 필자는 다만 중·고교 시절 겪은 사실을 포천문화, 국제 PEN, 국제공공연합회, 자유문학(순수문학지)(문예지), 생활문학(문예지) 등에 발표한 작파적 집필행위에 불과한 데 아무리 문학적 향기가 높아 독자들에게 감동을 주었다(?)하더라도 실록(實錄)이나 조사보고서(調查報告書)적 성격의 글을 쓴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포천시청 공무원인 정부의 공식기관(장관급 위원장)의 조사관을 포천에서 거주하지도 않고 출향(出郷)상경(上京)해서 살고 있는 필자에게 다만 6.25를 소재로 하여 수필체의 일기문을 집필하여 문학지에 발표하였다든 이 유 하나만으로 작파적 대답 밖에는 진술할 수 없는 처지임을 알았을터인데 필자를 대상으로 6.25 당시 포천으로 납치된 북한 김일성 집단의 동족학살의 만행을 증언토록 안내하였다든 사실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납득이 가지 않아 몇 번 거절하다가 담당 조사관의 간곡하고도 애절한 증언 요청에 하는 수 없이 3회의 전화 증언과 필자의 6.25를 소재로 한 수필체의 일기문 중 문학전문지 공무원문학 2007년 봄, 여름, 가을, 겨울호에 게재된 것을 복사 증정하는 선에서 조사를 마감하였다.

명해 달리는 진정서를 접수하고 진실과 화해를 위해 명백히 진상을 규명하여야 하겠는데 6.25당시 상황을 증언하여 사실 규명의 증인이 되어달라는 전화였다. 간단히 말하면 일동면사무소 근무 6.25년 공무원이었던 박 모씨의 6.25당시 역을한 죽음을 명예롭게 회복해야 할 과제를 안고 필자를 만나고자 하는 조사관의 태도는 진지하고 진실되고 노력하는 공직자의 자세였으나 필자 김창중은 6.25당시 중학교 2학년생이었으며 6.25전쟁이 끝난 해(1950~1953)는 고등학교 1학년생이었으니 생생한 증언자로 사실 규명을 위해 조사관 앞에서 서서 조사를 쓰시는게 너무 어린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이다. 필자는 다만 중·고교 시절 겪은 사실을 포천문화, 국제 PEN, 국제공공연합회, 자유문학(순수문학지)(문예지), 생활문학(문예지) 등에 발표한 작파적 집필행위에 불과한 데 아무리 문학적 향기가 높아 독자들에게 감동을 주었다(?)하더라도 실록(實錄)이나 조사보고서(調查報告書)적 성격의 글을 쓴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포천시청 공무원인 정부의 공식기관(장관급 위원장)의 조사관을 포천에서 거주하지도 않고 출향(出郷)상경(上京)해서 살고 있는 필자에게 다만 6.25를 소재로 하여 수필체의 일기문을 집필하여 문학지에 발표하였다든 이 유 하나만으로 작파적 대답 밖에는 진술할 수 없는 처지임을 알았을터인데 필자를 대상으로 6.25 당시 포천으로 납치된 북한 김일성 집단의 동족학살의 만행을 증언토록 안내하였다든 사실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납득이 가지 않아 몇 번 거절하다가 담당 조사관의 간곡하고도 애절한 증언 요청에 하는 수 없이 3회의 전화 증언과 필자의 6.25를 소재로 한 수필체의 일기문 중 문학전문지 공무원문학 2007년 봄, 여름, 가을, 겨울호에 게재된 것을 복사 증정하는 선에서 조사를 마감하였다.

명해 달리는 진정서를 접수하고 진실과 화해를 위해 명백히 진상을 규명하여야 하겠는데 6.25당시 상황을 증언하여 사실 규명의 증인이 되어달라는 전화였다. 간단히 말하면 일동면사무소 근무 6.25년 공무원이었던 박 모씨의 6.25당시 역을한 죽음을 명예롭게 회복해야 할 과제를 안고 필자를 만나고자 하는 조사관의 태도는 진지하고 진실되고 노력하는 공직자의 자세였으나 필자 김창중은 6.25당시 중학교 2학년생이었으며 6.25전쟁이 끝난 해(1950~1953)는 고등학교 1학년생이었으니 생생한 증언자로 사실 규명을 위해 조사관 앞에서 서서 조사를 쓰시는게 너무 어린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이다. 필자는 다만 중·고교 시절 겪은 사실을 포천문화, 국제 PEN, 국제공공연합회, 자유문학(순수문학지)(문예지), 생활문학(문예지) 등에 발표한 작파적 집필행위에 불과한 데 아무리 문학적 향기가 높아 독자들에게 감동을 주었다(?)하더라도 실록(實錄)이나 조사보고서(調查報告書)적 성격의 글을 쓴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포천시청 공무원인 정부의 공식기관(장관급 위원장)의 조사관을 포천에서 거주하지도 않고 출향(出郷)상경(上京)해서 살고 있는 필자에게 다만 6.25를 소재로 하여 수필체의 일기문을 집필하여 문학지에 발표하였다든 이 유 하나만으로 작파적 대답 밖에는 진술할 수 없는 처지임을 알았을터인데 필자를 대상으로 6.25 당시 포천으로 납치된 북한 김일성 집단의 동족학살의 만행을 증언토록 안내하였다든 사실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납득이 가지 않아 몇 번 거절하다가 담당 조사관의 간곡하고도 애절한 증언 요청에 하는 수 없이 3회의 전화 증언과 필자의 6.25를 소재로 한 수필체의 일기문 중 문학전문지 공무원문학 2007년 봄, 여름, 가을, 겨울호에 게재된 것을 복사 증정하는 선에서 조사를 마감하였다.

교육에세이 68

비전(vision)을 일깨워주는 교육적인 배려



이호연  
영북초등학교 교장

새 학년도가 되었다. 새로움은 늘 희망과 포부로 가슴을 부풀게 한다. 새 날을 맞는 소감을 다음과 같이 표현해 보았다.

전과 다른 소망이다. 소망은 이상을 낳는다. 새 뜻은 전과 다른 이상이다. 이상은 혼을 깨우친다. 새 날에는 큰마음의 웃을 입자. 소망의 찬가를 부르자. 이상의 찬가를 부르자.

“이상은 높게, 현실은 낮게, 이상은 꿈이다. 이상은 비전(Vision)이다. 이상을 갖고 있는 민족은 성공할 수밖에 없다. 내에게는 이상이 있다. 그러므로 나의 인생은 성공이 약속되어 있다.”

“이상은 높게, 현실은 낮게, 이상은 꿈이다. 이상은 비전(Vision)이다. 이상을 갖고 있는 민족은 성공할 수밖에 없다. 내에게는 이상이 있다. 그러므로 나의 인생은 성공이 약속되어 있다.”

새 날에는 이호연 지음  
새 날은 축복의 날이다.  
새 날에는 새 마음과 새 뜻을 심자.  
새 마음은 전과 다른 큰마음이다. 큰마음은 삶의 원동력이다.  
새 뜻은

필자도 나름대로 새 학년도를 맞는 감회가 새롭고 희망이 부풀어 있다. 먼저 학생들을 보고 싶다. 그들에게 비전(vision)을 심어 주고 싶어 서이다. 학교에서 교장으로서 직접 학생들과 접하는 기회는 제한적이다. 고차 할애된 시간이라고는 아침 애국조회 시간뿐이다. 필자는 이 시간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정성을 쏟는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학생들에게 비전(vision)을 심어주는데 더 노력할 계획이다. 다음은 혼화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다.

나치 독일의 수용소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빅터 프랭클(Victor Frankl) 박사는 수용소 생활 중에서 날마다 술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현실 속에서 마지막까지 견뎌 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그들이 그렇게 견딜 수 있는 힘이 무엇인지를 살핀 결과 빅터 프랭클(Victor Frankl) 박사는 뛰어난 건강, 탁월한 지능, 민첩한 생존기술 등 여러 가지 원인을 살폈지만 그런 남다른 조건들을 갖춘 사람들이 오히려 힘없이 무너졌다. 그 마침내 발견한 원인은 다름 아닌 미래에 대한 비전이라는 사실이었다. 미래에 대한 비전을 품은 사람이 온

갖 약조건을 견뎌내고 마지막까지 자신을 지켜 나갈 수 있는 힘을 알게 되었다.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살아야 할 사명을 깨닫게 된 사람들이었고 자신의 남은 삶에서 이루어야 할 비전을 지닌 사람들이었다. 요즘은 학생들이 풍요로운 속에서 생활하므로 어려움을 모르고 자라고 있다. 그러므로 살아가다가 시련과 장애를 만나게 되면 심중팔구는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만다. 이들에게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이 바로 비전(vision)을 심어 주는 교육적인 배려라고 생각된다. 학교에서 담임선생님께서도 나름대로 답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비전(Vision) 심어주기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을 검토해 보면 많은 덕목을 추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새 학년도에는 자라나는 모든 학생들이 비전(vision)으로 새로운 인생을 개척하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되기 바란다.

자유기고

포천의 봄은 질서의 리모델링으로



윤석제  
내촌마을소장

냉이 캐는 아낙네들이 어드님 동네 앞 밭두렁에서 정겹게 보이는 따스한 봄날이 계절의 느낌을 상큼하게 받는다.

냉이 캐는 아낙네들이 어드님 동네 앞 밭두렁에서 정겹게 보이는 따스한 봄날이 계절의 느낌을 상큼하게 받는다.

상호 존중된 질서의식으로 살고 싶은 시, 자랑하고 싶은 포천으로 정착되길 기대한다. 약속은 질서이고 약속은 법이다. 서로 무심코 무시하는 질서는 가족과 사회를 무너트리고 스스로 상처를 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선진사회는 경제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양질의 편안한 삶을 갖추는 것으로, 기초질서 생활화로 양심과 결합하는 성숙한 포천시민으로 승화되어 살고 싶은 포천으로 기필코 만들어지길 간절히 소원한다.

만들어지길 원한다. 남이 피해를 입든 말든 항상 나 자신만 해결하면 된다는 잘못된 이기주의 사고방식을 바꾸고, 너와 나, 우리, 더불어 편안하고 함께 우리는 포천을 만들어야 될 것이다. 지금 순간의 편안이 아니라 현재 뿐만 아니라 나와 내 가족, 시민, 전체가 영원히 상호 편안함을 받고

제5기 포천문예대학 수강생 모집



한국문인협회 포천시지부는 문학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이끌고 시민의 문학여건 개발과 문학인구 저변확대로 시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제5기 포천문예대학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 기 간
  - 2008년 4월 17일 ~ 6월 19일 (10주)
  - 매주 목요일 19:00 ~ 22:00
- 대 상
  - 포천시 및 인접 시·군 거주자중 학생 및 일반 시민 및 교직원
- 과 목
  - 시·수필·소설·기타(창작 문학 강연회)
- 강사진
  - 시부문(이론과 실제포함)
    - 대진대학교 박정근 교수
    - <제3의문학> 주간 안익수 시인
  - 수필·소설부문(문예창작 포함)
    - 대진대학교 김성열 교수(문창과)
    - 대진대학교 신종곤 교수(문창과)

- 장 소
  - 대진대학교 평생교육원 (복지관관 311호)
  - (소재지:경기도 포천시 선단동 산11번지)
- 특 전
  - 본 문예대학 수강료 전액면제
  - 문예대학 수료시 포천문인협회 입회비 면제
  - 본 기간 이수자에 대하여 대진대학교 총장 명의 수료증 교부
- 기 타
  - 문예대학 활성화를 위하여 학점은행제 추진중이며(교육청과 협의중)
  - 문학기행·명사초청 강연 및 낭송회 개최 예정
  - 기타 상세한 내용은 포천문인협회 다음카페cafe.daum.net/pochunmunhak나 포천문인협회 사무국장 김선진 (010-2788-357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포천시지부장 이중희